

공공신학적 주제로서의 소명과 코이노니아 관점에서 본 고령화사회*

이상훈 (호남신학대학교 교수)

I. 서론

II. 고령화와 사회경제적 영향

1.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도전
2. 또 다른 이슈: 사회적 조건

III. 소명과 코이노니아에 대한 공공신학적 해석

1. 소명
2. 코이노니아

IV. 결론과 교회의 참여에 대한 제안

* 본 논문은 한국기독교윤리학회와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13 공동 학술대회(2013. 10. 25)와 제48회 한국실천신학회 정기학술대회(2013. 6. 1)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ABSTRACT •

An Aging Society in the Perspective of Vocation and *Koinonia* as
Public Theological Themes

Lee, Sang Hoon

The longevity revolution stemmed from extended life expectancy at the beginning of 21st century as a root of various individual and social changes facing Korean society is deserved to get our attention. The word 'Homo hundred' is already widely recognized in almost every sphere of our lives. Korean society often labelled as an example of compressed aging is now experiencing the most rapid population aging in the world and this phenomenal demographic change is expected sooner or later to make South Korea the most aged society in the world. In the years 2020~2025, Korea will enter the era of 'Homo hundred' when the modal age at death, i.e., the age where most of the deaths are occurring, reaches 90 years. The era of Homo hundred and an aging society should not be regarded simply as increase in life expectancy but as a fundamental change that has a highly comprehensive influence and accordingly requires a variety of measures to cope with it. Therefore this unprecedented demographic change will give rise to a new understanding of life cycle which will affect all members of society across all age groups. However, our social institutions and systems are not prepared yet for the paradigm shift to meet the demands from the fundamental change, and previous consciousness structure and value system of the old paradigm still lingers in our society. This systemically, institutionally, socially, culturally, and legally insufficient preparation for the era of Homo hundred makes a sharp contrast with an urgent need for comprehensive and wide-ranging change. A survey on people's perception about the era of Homo hundred shows that extended life expectancy without appropriate roles and financial unpreparedness for the retirement are the reasons to be negative about the era of Homo hundred. Such being the case, this paper attempts to provide

viable foundation for both theories and practices by equipping people actively to engage in economic and volunteer activities, and by motivating them to participate in community and relationship-oriented life. This study thus seeks to examine the possibilities to deal with twofold tasks of an aging society by making a public theological reinterpretation of vocation in connection with appropriate social activities and paid and unpaid work, and *koinonia* with regard to ethics of community and relationship as social aspects of happiness.

Key words: Public Theology, Christian ethics, aging society, church, happiness, vocation, *Koinonia*

I. 서론

지난 세기동안 인류사회에 많은 혁명이 있었지만 수명연장에 따른 장수혁명이 가져온 미증유의 인구학적 변화만큼 우리의 삶에 도전과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는 것은 많지 않을 것이다.¹⁾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이슈화되기 시작한 수명연장에 따른 장수혁명은 우리에게 닥칠 수많은 변화의 근원이 되기에 그것이 갖는 함의에 신학윤리적 주의가 환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미 2009년 UN 세계인구고령화 보고서는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인구고령화가 지속적으로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 밀어 닥치며 정치, 경제, 가족 등 인간 삶의 전 분야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그 파급력을 지적한 바 있다.²⁾ 이러한 분석을 반영하듯 100세인을 가리키는 ‘호모 헨드레드’(Homo Hundred)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익숙한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다. 흔히 압축적 고령화(compressed aging)로 불리는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으며³⁾ ‘최빈사망연령’이 90대가 되는 시점을 100세 시대라고 할 때 2020~2025년에 100세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100세 시대와 고령화사회는 단순한 수명연장이 의미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 매우 광범위한 파급효과를 지니며 이에 대한 다각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리킨다. 장수혁명이 과거와는 다른 삶의 방식과 유형의 필요와 더불어 경제·사회·문화 등 사회전반에 걸친 시

1) 제인 폰다, “인생의 3막”, filmed Dec. 2011, posted Jan. 2012, TEDxWomen 2011.

2) UN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Ageing 2009*, 2010.

3) 한국이 세계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란 예상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예측은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2060 등의 자료를 기초로 이루어진다. 다음도 참고하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미래사회 협동연구총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전망 및 하락 요인 분석”, 2012. 2. 5(02); 국무총리실, 「창조경제, 보건, 고령친화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http://pmoblog.tistory.com/m/post/735>; 김태현 「세계인구총회 유치배경 및 개요」 『보건복지포럼』 (2013. 7.)

스텝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전례 없는 인구학적 변화는 전 세대에 걸쳐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인생단계 이해를 일으킬 것이다.⁴⁾ 그러나 우리 사회의 제도나 시스템 구비는 아직 미진한 단계이고 의식과 문화는 이전의 패러다임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아 시대적 변화에 따른 요구와 대조를 보인다. 또한 고령화사회 논의에서 가장 현실적인 문제 중 하나인 은퇴 및 노후를 위한 재정적인 준비의 정도와 수준은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태로 조사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압축적 고령화와 이에 훨씬 못 미치는 대처가 야기한 은퇴생활의 커다란 불확실성은 높은 ‘장수 리스크’라는 잠재적 위기 요소로서 개인은 물론 사회·국가적인 장애와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상기의 우려는 통계상의 수치로만 머물지 않고 이미 현실 문제로 부각되고 있음을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준비되지 않은’ 채 맞게 되는 100세 시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데서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담고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100세 시대 국민의식 조사’ 결과는 무엇보다도 뚜렷한 사회적 역할은 없이 늘어나기만 한 긴 여생과 그에 반해 경제적으로 준비가 불충분한 노후 등의 문제가 100세 시대에 대한 불안감의 주요 원인임을 설명해주고 있다.⁵⁾ 그러므로 장수혁명에 대한 우리 사회와 국민이 갖는 불안감과 그로 인한 부정적인 시각은 경제생활을 포함한 적절한 활동의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동기를 부여하며 공동체 및 관계 중심의 삶을 증진하는 이론과 실천근거의 제공 속에서 문제해결에 기여하는 단초를 발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변화

4) “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주최, 「역동적인 100세 사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2011. 12. 8,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생 100세 시대 대응 국민인식 조사결과』, 2011; 오진호, 「기대 여명을 활용한 장수리스크지수 산정」, 2014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2014. 2. 12.

가 본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주의를 끌며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일 및 직업과 연관된 이러한 새로운 흐름을 주목한 경영철학자 피터 드러커는 두 가지로 21세기의 변화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하나는 늘어난 수명 특히 노동 수명이 증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생계의 문제에서 벗어나 '성공'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의 생애주기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생애주기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통해 이들은 삶의 전반기인 은퇴 이전보다 의미 있고 행복한 '제2의 인생'(후반인생 혹은 인생2막)을 설계하여 보다 풍성한 후반기를 살고자 한다. 수명연장으로 인한 100세 시대의 진입에 걸 맞는 이러한 사고의 변화는 인간의 삶을 좀 더 고령화 친화적으로 바꾸며 정년 혹은 은퇴를 또 다른 인생을 살기 위한 준비와 시작으로 받아들이는 새로운 생활문화를 낳을 것이다. 그 결과 사람들은 정년 혹은 은퇴를 전후하여 전반기 삶에서 얻은 역량과 지식이 가장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활용되는 방식으로 사회의 필요와 자신의 흥미 그리고 장점이 수렴되는 분야나 활동을 찾고자 한다.⁶⁾ 현실적으로 대개 생계 수단이 상으로는 인식되지 못했던 일과 직업에 대한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이제는 불가피한 노동의 의미를 넘어서 목적의식을 일이나 직업에서 찾기를 원하기 시작했다. 은퇴와 상관없이 혹은 정년 이후에도 가치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적절하고 보람 있는 활동(경제를 포함한 여러 사회참여)을 통해 보다 성숙하고 풍성한 일(직업) 이해와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현재 우리 사회에 등장한 고령화 이슈에 대한 접근이 경제적 안정과 육체적 건강 위주나 이에 의존하거나 관련된 '여가생활'과 매우 제한된 사회활동의 패러다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문제의 보다 근원

6) 피터 드러커, 「추천하는 글」, 밥 버포드, 『하프타임』(국제제자훈련원, 2009), 21-22.

적인 측면과 넓은 스펙트럼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정년 후의 ‘고령자’들을 수동적이고 비참여적인 ‘영구적’ 은퇴자나 ‘주변인’으로 남게 하거나 생애주기에서 은퇴를 단순히 쉬는 기간이란 편견에 매이게 하는 경향이 지속될 수도 있다. 이는 위에서 언급한 경계를 포함한 사회참여활동의 필요성과, 의미를 추구하는 제2인생에 대한 최근의 흐름과 대조를 보이는 양상이다. 노후자금과 건강 또는 웰빙에 경도된 관점에 기초한 대처와 논의가 놓이거나 의도적으로 비켜간 본 이슈에 대한 이해는 문제의 보다 본질적인 면과 넓은 스펙트럼 그리고 이 양자를 조명하는 공공신학적인 관점이 차별되게 부여할 수 있는 통찰이 요구된다고 본다. 신학윤리외 분야에서의 고령화사회에 대한 접근 및 대처에 대한 이러한 비판이 공동의 삶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그리고 타학문 분야와의 공유 및 대화 가능성의 정도와 범위가 여전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신학윤리적 논의나 기획으로 치부될 수 없는 것은 본 이슈의 성격이 국민 모두가 정책대상이란 점과 더불어 고령화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온 신학이외 분야들도 고령화사회 및 은퇴에 대한 준비에서 신학윤리적 함의가 많은 비재무분야가 재무분야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등의 때문이다.⁷⁾ 이들 신학이외 분야들은 은퇴 후의 삶에서, 예를 들어, 일 및 사회활동(직업소명 및 이웃사랑), 종교(신앙), 인간관계(공동체), 평생학습(교육) 등 신학윤리적인 주제들로 충분히 토론될 수 있는 분야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비재무분야의 적절한 준비와 실천이 바람직한 후반인생을 위해 가볍게 여길 수 없다고 말한다.

우리가 다루는 이슈와 더불어 생각하고 싶은 주제는 행복 혹은 삶의 질 개념이다.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고령화사회 문제와 관련하여 높은

7) 예를 들어 강창희 전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장의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부모와 다르다』(쌤앤파커스, 2013)와 우재룡 전 삼성생명은퇴연구소장의 『100세 시대 은퇴 대사전: 30부터 준비하는 108가지 은퇴전략』(21세기 북스, 2014)를 참고하라.

장수리스크 및 사회적 역할과 충분한 경제력의 부재 등으로 인한 100세 시대에 대한 우려와 부정적 시각은 행복 혹은 삶의 질 주제와 연결될 때 보다 발전적이고 대안적인 논의가 전개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고령화사회 문제와 장수혁명에 대한 불안감의 주요 원인에 속하는 수입·건강·일자리 등은 행복에 대한 객관적 조건에 해당된다. 그런데 행복에 관한 다양한 연구 및 조사 결과는 수입·건강·일자리 등 객관적 삶의 조건 외에도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다른 중요한 요인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가령 유엔의 ‘세계 행복 보고서(2012)’는 소득이 행복에 중요하고 GNP가 가치 있는 목표이나 이러한 경제적 요소 못지않게 사회적 측면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동 보고서는 기본적인 생활 수준이 행복에 중요하자만 이것이 충족된 후에는 경제적 수입보다 사회적 신뢰, 공동체의 유대 및 인간관계의 질에 따라 행복이 결정된다는 것이다.⁸⁾

행복이해가 경제적 여유 위주이거나 생활이 돈에 좌우되는 행복인식의 틀과 기준에서 볼 때 한국 노인의 빈곤율이 OECD 가입국 가운데 최하위권인 점과 평균 수명의 증가와 출산율 감소에 따른 세계최고의 고령화 속도로 취약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고려하면 우리의 미래는 밝지 않아 보인다.⁹⁾ 그렇다면 이러한 비관적인 미래 예측에 실효성 있게 대처하기 위한 실마리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서술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적절한’ 활동이나 유급직을 통한 일정한 수입과 아울러 사회적

8) *World Happiness Report 2012*, 9.

9) 손준현·김양중, ‘한국노인 빈곤율 OECD중 ‘최악’...공적연금 등 빈약한 탓’, 『한겨레』, 2013. 9. 24.; 유엔인구기금(UNFPA) 등 유엔 산하단체들과 국제 노인인권단체인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HelpAge International)의 ‘글로벌 에이지와치 지수 2013’(Global AgeWatch Index 2013) 보고서는 세계 91개국 중 한국의 노인복지는 67위이고 소득 분야 복지지는 최하위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 노인복지 세계 67위 ‘낙제점’...소득 ‘최하위’’, 『연합뉴스』, 2013.10. 1).

신뢰와 공동체의 유대를 위한 인간관계의 질 제고의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놓여 있다. 이에 본 발제는 적절한 사회적 활동이나 일과 관련해서는 소명 개념과 행복의 사회적 요소로서의 공동체 윤리를 위한 코이노니아에 대한 공공신학적 해석을 시도함으로써 위에서 제기된 고령화사회의 이중 과제에 대한 대처에의 기여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고령화와 사회경제적 영향

1. 고령화의 사회경제적 도전

앞에서 언급된 대로 고령화문제는 전 세대에 걸쳐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생애주기 이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공동의 삶의 이슈로 개인과 사회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이처럼 고령화로 말미암은 영향의 범위는 전면적이고 변화의 파급은 일관되나 각 개인과 세대가 동일하게 경험되고 사회경제적 체감 온도가 한결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고령화 현상에 있어 다른 인구집단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고 장수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가능한 넓은 연령 스펙트럼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측면들을 중심으로 선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 해당 연령층들에서 발견되는 상대적으로 더 직접적인 고령화의 영향과 높은 장수리스크에의 노출은 예를 들어 직업과 사회활동, 연령주의(ageism) 및 편견 그리고 노후자금 등의 이슈에서 이들 이슈들이 노정하는 문화적, 사회적, 법적인 장벽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이슈들과 관련 분야들에 관한 다양하고 상세한 연구와 결과물이 많으나 이 섹션에서는 논의의 전개를 위해 필요한 내용만을 제한적으로 요약하기로 한다.

첫째, 짧은 정년과 조기퇴직이 초래하는 사회경제적 영향이다. 취업포

텔 잡코리아가 직장인 6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체감정년퇴직 연령’ 조사는 우리나라 대다수 직장인들이 50세 전에 퇴직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조사 대상의 70%는 지금 근무하는 회사에서 정년을 맞이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국내 직장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년퇴임 평균 연령이 48.8세라는 내용도 전했다. 이러한 사실은 정년제란 직장에서 물러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나이까지 일할 수 있다는 보장의 의미 보다는 이후에는 반드시 퇴직을 해야 한다는 개념이 더 강하다는 고용행태를 말해준다.¹⁰⁾

이러한 이른 체감정년퇴직연령이 유발하는 사회경제적 심각성은 현재 720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세대가 은퇴와 창업·폐업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 의해 한층 더 고조된다. 우리 사회 경제의 중심축을 형성해온 베이비부머들의 퇴직으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와 소비침체 등이 사회불안 및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세계적 컨설팅 회사 맥킨지도 ‘한국 보고서’를 통해 “중산층 가구의 절반이 소득 정체와 지출 확대의 덫에 걸려 빈곤층으로 추락할 위기를 맞고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¹¹⁾ 반면 베이비부머들의 대다수는 저축이나 연금과 같은 노후를 위한 준비가 부족한 현실이다. 더군다나, 상당수 베이비부머들이 노후자금과 관련해 크게 의존하고 있는 국민연금(노후준비 방법 중 38.5% 차지)은 퇴직 후 연금 수령시점까지 공백기가 존재한다. 현재 국민연금수령개시 연령은 만 61세이지만 2033년부터는 65세가 되어야 수령 가능하며¹²⁾ 일반적으로 50대 중, 후반에 은퇴한다면 적어도 5~10년

10) 조용철, ‘직장인, 체감 정년퇴직 연령은’, 『파이낸셜뉴스』, 2013. 1. 24.; 기업의 규정된 정년 (평균 57세)과 실제 퇴직연령 (평균 53세) 간에 간격(‘정년디커플링’)이 존재하고 존재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역사적·제도적 차원에서의 분석을 위해서는 다음을 보라. 방하남 외 저, 『기업의 정년실태와 퇴직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2. 12. 28.

11) ‘한국 중산층 절반이 빈곤층 추락 위험 있다’, 사설, 『조선일보』, 2013. 4. 15.

정도를 별도의 대비가 필요한데 퇴직연금이 활성화 되어있지 않고 개인 연금마저 가입률이 낮아 은퇴 후 소득 공백기인 무소득 크레바스 (crevasse)에 빠질 수도 있다.¹³⁾

상기의 사회경제적 현실은 지속적인 경제활동이나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됨을 뜻한다. 청년연장이나 제2의 경제활동 필요성에 따른 청년이나 퇴직 후 재고용 혹은 재취업 교육 등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사회적 합의 및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¹⁴⁾

둘째, ‘젊은 노인’의 증가를 들 수 있다. UN과 대부분 국가는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65세를 노인기준연령으로 삼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통계청 기준이나 노인복지법 등 각종 법규에서 노인을 규정하는 나이가 대부분 ‘만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1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노인 83.7%가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이라고 답해, 통상적으로 정의되는 65세는 평균 수명 증가 추세에 따라 더 이상 노인의 연령 기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젊은 노인’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데 법이나 사회 제도는 여전히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어 노인과 노화에 대한 기준의 상향조정과 이를 위한 인식과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¹⁵⁾

12)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나이는 2013년을 시작으로 5년마다 1세씩 연장돼 2033년부터는 65세가 되어야 수령가능하기에 1953~1956년생은 만 61세부터, 1957~1960년생은 만 62세, 1961~1964년생은 만 63세가 되어야 연금을 탈수 있다.

13) 직장에서 은퇴해 국민연금을 받을 때 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을 말한다.

14) 지난 해 4월 30일 국회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이른바 ‘정년 60세 연장법’(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소수만이 국내 기업(약 17.9%만 은퇴교육 실시)에서 체계적인 은퇴준비 교육을 받고 퇴직하며 그나마도 대부분 전직과 관련된 직업적성과 창업·재취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성연진, ‘국내기업 18%만 은퇴교육...’『헤럴드경제』 2012. 4. 19),

15) 김철중, ‘노인 기준 70~75세로’, 『조선일보』, 2011. 1. 12.

셋째, 고용 없는 성장이다. 최근에 이르러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지고 실업률이 증가하며 고용의 비정규직화가 발생하고 조기퇴직이 빈번해지고 있다. 지식·기술집약적이고 노동절약적인 산업구조로의 변화와 감량 경영을 통한 경영합리화로 인한 신규채용 유보와 감원이 ‘고용 없는 성장’ 추세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산업 전반에 걸쳐 급격히 진행되는 기술혁신과 자동화로 전통적 기술에 의존한 노동력의 수요와 일자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사실 우리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에 있어서 기계가 점차 인간 노동력을 대체하는 시대로 진입하였다. 이처럼 제조와 서비스 제공 과정에 있어 자동화와 세계화가 초래한 인간 노동의 대체 경향은 고령화 친화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고용과 이전과는 다른 일에 대한 개념을 요구한다.¹⁶⁾

넷째, 역할상실과 사회적 소외이다. 우리나라 고령층은 경제활동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11 노인실태 조사’는 65세 이상 인구의 약 30%가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지속적인 경제활동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반면에 동 연령층의 자원봉사참가율은 과거와 큰 차이가 없이 매우 낮게 나타나 현재 3.9%만이 봉사활동을 하고 있고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86.9%나 된다. 고령층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홍보 47.0%,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장소 등에 관한 정보 제공 25.3%, 다양한 노인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18.9%, 노인 자원봉사자 지원 확대 8.7% 등이 언급되었다.¹⁷⁾ 이러한

16) 다음을 참고하라: 제레미 리프킨『노동의 종말』, 이영호 역 (민음사, 2005); 로버트 B. 라이시, 『국가의 일』, 남경우 역 (까치글방, 1994); 토마스 프리드먼, 『세계는 평평하다』, 이근식 역 (21세기북스, 2013). 이와 관련 금재호는 연령차별금지법의 강화를 통해 장·고령층 노동인구가 노동시장으로 유입하여 고용안정을 도모할 필요를 제기하였다(그의 「노동시장 환경변화와 고용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한국노동법학회, 한국노동경제학회 춘계정책토론회, 대한상공회의소, 2013. 3. 21을 보라.

대책과 더불어 비경제적 사회활동이나 자원봉사에 관한 은퇴자들의 인식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계기가 마련될 때 일에 대한 발전적이고 사회적인 이해가 정착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의 일에 대한 발전적이고 사회적인 이해를 위한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계기란 자원봉사 및 비경제적 사회활동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부각시키며 그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진작하는 다양한 시도를 가리킨다. 이는 고령층이 겪는 은퇴 후의 역할상실과 사회적 소외의 문제에 대한 생산적인 대안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년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의 약화가 초래되며 은퇴 이후에는 사회적인 관계가 이전에 비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베이비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를 보면 베이비붐 세대의 93.2%가 노후에는 부부끼리, 혹은 혼자 살겠다고 답했다.¹⁸⁾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는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65세 이상자가 총 10,674명인데, 이들 응답자의 노인독거와 노인부부가 68.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¹⁹⁾ 노인독거가구 또는 노인부부가구가 노인의 주요 가구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²⁰⁾ 고령화에 따른 이러한 관계문화의 변화는 전통적인 가족의

17)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6.

18) 노재현, '가시고기· 문어는 없다 자녀는 모시기 싫고 부모는 신세 지기 싫다', 『중앙일보』, 2012. 6.12.

19)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98.

20)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17. 이 같은 현상은 '2010 인구주택 총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위의 조사에 따르면 2035년에는 전체 가구 중 3분의 1이 1인 가구가 될 뿐만 아니라 1인 가구가 가장 일반적인 가구 형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2010인구주택총조사」, 2011. 10. 27.; 송준호, '싱글 인생, 우리는 '무연사회'로 간다', 『한국일보』, 2011. 8. 11).

고령화 사회적 현상으로서 혼자 사는 단신 가구가 30%를 넘어선 데다 가족과 지역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점차 증가하는 무연(無緣)과 고독사(孤獨死)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일본의 경우에 관해서는 다음을 보라: NHK 무연사회 프로젝트팀, 『무연사회:

이해와 기능을 발전적으로 유지하도록 돕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그 틀을 넘어서 가족 대체적인 효과를 동반하는 비혈연공동체와 관계시스템의 등장을 요청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년층들을 위축시키고 사회적 주변인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편견과 배제 그리고 제한 같은 차별의 다양한 형태이다.²¹⁾ 사실 고령층과 노화에 대하여 개인의 의식과 삶의 다양한 영역에 광범위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편견과 부정적 시각은 고령화사회가 직면한 난제 중 하나이다.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못지않게 노화에 대한 그릇된 관념은 인간을 열등하게 만드는 비인간화 상황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다른 차별이 차별당하는 사람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변화시키듯 노화에 대한 편견에 따른 연령주의(ageism)적 차별은 차별당하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이데올로기가 된다.²²⁾ 따라서 연령주의적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는 우리 모두가 잠재적 희생자들과라는 인식과 더불어 자발적으로 동참할 때 실현될 수 있다. 가령 모든 세대가 고령층을 주변인이 아니라 당당한 ‘사회적 주류’로서 수용함으로써 이들의 “창의성이 발휘되는 것을 방해하는 심리적 및 사회적 제약”을 풀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²³⁾

약술한 이상의 사회경제적 현실에 대한 주목과 분석은 고령화사회의 사회경제적인 모든 양상을 상세히 다루기보다는 경제 이외 요소들의 중

혼자 살다 혼자 죽는 사회』김범수 역 (용오름, 2012).

21) 노화에 대한 편견에 관해서는 다음의 의료과학적인 연구서들을 참고하라. 박상철, 『노화혁명: 고령화 충격의 해법』(하서출판사, 2010); 박상철, 『당신의 백년을 설계하라』(생각속의집, 2012); 바버라 스트로치, 『가장 뛰어난 중년의 뇌: 뇌과학이 밝혀낸 중년 뇌의 놀라운 능력』, 김미선 역 (해나무, 2011); 데이비드 베인브리지, 『중년의 발전: 과학이 밝혀낸 중년의 놀라운 능력』 이은주 역(청림출판, 2013).

22) 프랭크 슈르마허, 『고령 사회 2018: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라』, 장혜경 역 (서울: 나무생각, 2011). 저자는 노화를 가장 독자적인 문명의 사건들 중 하나로 새롭게 정의하지 못한다면 인류가 안락사 등 생명경시 문화, 대규모 세대전쟁, 가장 심각한 (인적)자원의 남용으로 치닫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한다.

23) 김동배, ‘노인, 주변인 아니라 당당한 ‘사회적 주류’’, 『노년시대신문』, 2013. 3. 29.

요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지녔다. 이들 경제이외 요소들의 중요성을 소홀히 여기거나 그것들을 경제적 요소로 편입시킬 경우 복합적인 고령화사회의 이슈가 경제적 관점으로만 이해되고 해법이 찾아짐으로 인해 문제의 극복을 위한 대안제시 노력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이러한 경제 이외의 요소들이 경제적 요소들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사실은 위의 고령화에 수반되는 사회경제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적절한 이해와 해법 제시가 경제적 관점 위주의 논의에서 감안되지 않아 놓치기 쉬운 측면을 본 주제와 연관되는 국민행복과 경제성장 간의 비례관계 이슈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

2. 또 다른 이슈: 사회적 조건

고령화사회의 사회경제적인 도전이 제기하는 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 마련 노력은 비경제적인 요소에 대한 진지한 참작을 요구하며 그럼으로써 행복과 경제성장 혹은 소득 간의 상관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적절한 해법 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국민행복’ 여론조사는 20년 전인 1993년에 실시한 조사에서와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3배가량 증가한 국민소득이 행복지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경제성장과 국민 행복간의 상관성이 크지 않다는 사실과 객관적인 소득액보다 생활형편에 대한 주관적인 인식이 행복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²⁴⁾

행복과 소득간의 상관성에 관한 위와 유사한 입장은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졌다. ‘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도달하고 어느 정도 기본적 욕구(basic

24) 홍영림, ‘행복한 국민’ 과연 늘어날까, 『조선일보』 2012. 1. 30. 또한 한국인들은 소득과 행복과의 관련성에 대해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더 많이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신영, ‘돈과 행복’, 『조선일보』, 2011. 1. 7).

needs)가 충족되면 그 이상의 소득증가는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미국의 경제사학자 리처드 이스털린(Richard Easterlin)의 이른바 ‘이스털린의 역설(Easterlin’s Paradox)’이다. GDP의 한계를 제시하고 경제성장과 행복수준이 반드시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이스털린의 역설은 어느 정도 기본 욕구가 충족된 후에는 경제적 성장보다는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말해준다.²⁵⁾ 한국의 경우 지난 20년간 1인당 소득은 급속히 증가하여 2만 달러가 넘었지만 삶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큰 변화 없이 정체하고 있어 이스털린의 역설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스털린의 역설이 적용이 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성장 위주의 경제운영에서 탈피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공공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고 성장과 사회통합이 조화를 이루는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미다.²⁶⁾

비슷한 맥락에서 데릭 보크(Derek Bok)는 경제적 부(富)가 가져다 줄 수 있는 행복이 우리의 기대만큼 많지 않고 지속적이지도 않다며 금전적 성공 중심의 행복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사람들에게 잘못되고 지적한다.²⁷⁾ 그는 행복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논문에 근거하여 소득이 어느 일정 수준을 넘으면 절대소득의 증가는 행복과 많은 연관이 없게 된다고 설명한다. 계속해서 보크는 인생의 목표와 삶의 만족은 경제적 부(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달성될 수 있으며 타자들과의 유대와 신뢰 그리고 상호 봉사의 삶의 실천이 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한다.²⁸⁾

25) 한국개발연구원(KDI),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분석체계 개발』, 2010. 6: 4-5.

26) 한국개발연구원(KDI),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분석체계 개발』, 2010. 6: 184-185.

27) 데릭 보크, 『행복 국가를 정치하라』, 추홍희 역(서울: 지안, 2011), 8.

28) 보크, 『행복 국가를 정치하라』, 9. 소득과 행복의 상관관계에 대해 상반된 두 가지 주장들이 있어왔다. 우선 소득이 많을수록 행복감도 높아지지만 연소득이 7만5000달러를 넘으면 소득 증가에 따른 행복감은 최소한에 그친다는 앵거스 디튼(Angus Deaton)과 다니얼 카너먼(Daniel Kahneman)의 연구를 보라: Daniel Kahneman and Angus Deaton, “High income improves evaluation of life but not emotional

이러한 논의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부(富)의 증가가 삶의 만족과 직결된다는 경제적 관점위주의 사고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 혹은 지속가능한 삶의 질 제고에 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²⁹⁾ 경제적 여유에 치우치거나 의존한 행복이해 경향과 생활이 돈에 좌우되는 물질관에 대한 수정은 행복한 사회와 개인의 삶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경제적 관점이나 소득수준 외에 다른 삶의 질 제고의 결정요인에 주목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데릭 보크가 지적하였고 유엔의 세계행복보고서가 제안한 것처럼 사회적 요소 즉 타자들과의 유대와 신뢰를 높이고 상호 봉사의 삶의 실천을 통해 관계의 문화와 공동체의 건설 그리고 신뢰 및 호혜성과 상호 관계 등 사회적 자본의 증진이 필요하다.

물론 우리나라의 고령화사회가 제기하는 빈곤이나 불충분한 경제력의 문제는 '이스털린의 역설'이나 데릭 보크의 주장이 전제하는 기본적인 생활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삶의 질 제고나 행복을 위해 일정한 경제적 안정이 가져다주는 기여도를 무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적절한 소득의 확보를 위한 경제활동의 기회가 제공되면서 동시에 이러한 경제 활동이 사회적 요소에 해당하는 공동체적 삶의 조건이 충족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우리가 다루는 문제에 어느 정도 대안제시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보인다.

이에 다음 섹션에서는 위에서 시사된 적절한 활동(경제활동을 포함한)

well-being," Center for Health and Well-being, August 4, 2010.

http://www.princeton.edu/news/Income_Happiness/Happiness_Money_Report.pdf 이와 반대되는 의견을 주장하는 벅시 스티븐슨(Betsy Stevenson)과 저스틴 울퍼스(Justin Wolfers)의 논문을 보라 ("Subjective Well-Being and Income: Is There Any Evidence of Satiation?", Brooks Institution (April 2013). <http://www.brookings.edu/research/papers/2013/04/subjective-well-being-income>

29) 김영신, '2011년, 한국인이여 행복하라', 『조선일보』, 2011. 1. 24.

과 공동체 및 관계 회복의 과제를 ‘소명’과 ‘코이노니아’에 대한 공공신학적 해석을 통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 교리와 신학은 사회경제적 함의(implications)를 가진다는 이해에 터해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바르게 이해되고 철저히 실천되는 신학사상과 교리는 사회의 변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기독교 실천 및 윤리는 공동의 삶과 사회의 개선에 기여하기 때문이다.³⁰⁾

III. 소명과 코이노니아에 대한 공공신학적 해석³¹⁾

위르겐 몰트만에 따르면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과 세계 모두를 다루기 때문에 ‘공적인 신학’(theologia publica)이며 따라서 ‘사회의 공적인 일’(res publica)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³²⁾ 그럼으로써 기독교 신학은 개인적 혹은 사적인 영역이나 차원으로만 이해되거나 한정되지 않으며 사회일반과 관련하는 ‘공적’(公的)인 논의들이나 사회의 여러 영역들에 속하는 제 문제들을 진지하게 다루어야 한다. 공공신학자 맥스 스택하우스

30) 기독교적 신념과 삶의 습관 그리고 교리 및 신조가 과학기술, 정치, 경제 (기업과 경영을 포함하여), 문화, 예술, 교육, 인권, 의료, 가정생활 등에 끼친 영향에 관해서는 Max L. Stackhouse and Lawrence M. Stratton, *Capitalism, Civil Society, Religion, and the Poor* (Wilmington: ISI Books, 2002)를 보라.

31) 여기서는 공공신학에 대한 상세한 논의보다 다루는 이슈와 주제를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접근하는 목적에 부합하여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공공신학의 다양한 관점이나 폭넓은 논의를 위해서는 다음을 보라. 맥스 L. 스택하우스 『글로벌시대의 공공신학: 세계화와 은총』 이상훈 역 (북코리아, 2013), Part 3; Max L. Stackhouse,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y: Christian Stewardship in Modern Society* (Lanham, Marylan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1);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북코리아, 2007);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서울: 북코리아, 2008); William F. Storrar and Andrew R. Morton, *Public Theology for the 21st Century* (New York: T&T Clark, 2004).

32) 위르겐 몰트만, 『세계속에 있는 하나님』, 광미숙 역 (서울: 동연, 2009), 9.

스(Max L. Stackhouse)는 이러한 공공신학적 시도는 ‘공적 삶의 체제와 정책에 대한 안내자’ 역할을 하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한다.³³⁾

이러한 공공신학은 비기독교인들과 공동의 삶에 관련된 모든 공적인 이슈들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지속가능한 대안의 제시를 시도함으로써 사람들의 생각과 생활방식뿐 아니라 사회구조의 변화를 유도하며 공동의 삶이 개선되도록 돕는데 그 특징이 있다. 따라서 ‘공적’(公的)이란 의미는 공적 삶을 위한 사회구조적 변형, 공동선을 위한 가치관 형성, 공적 삶의 질의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신학과 타 학문 또는 전통 사이의 학제 간 혹은 다양한 전통 간의 대화 등을 포함하기에 신학이론적일뿐만 아니라 사회 실천적인 프락시스(praxis)이다.³⁴⁾

이러한 이해에 충실한 공공신학은 신학윤리의 방향이 ‘미시담론’이나 ‘개인윤리’적 차원에 머무르는 경향 대신 사회의 개혁을 초래할 만큼 충분히 철저하고 또한 실행 가능할 만큼 현실적이어야 함을 주문한다.³⁵⁾ 당면한 문제와 이슈를 다룸에 있어 상대적으로 현실 적용성과 실효성이 낮은 루트를 거부하고, 공동의 삶의 과제에 책임적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 제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신학윤리적 논의에서 기독교와 교회가 책임적 존재가 되고 사회 책임적 참여를 공공복리 추구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움직임의 의미하며, 공공복리를 신학적 성찰의 주제와 과

33) Max L. Stackhouse,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y: Christian Stewardship in Modern Society* (Lanham, Marylan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1), xi.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에 대한 보다 상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아래 각주 35)의 자료들을 참고하라.

34) 이상훈, 「신학해제: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에 관한 이해」,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북코리아, 2007), 30-31; Paul L. Lehmann, *The Decalogue and a Human Future* (Grand Rapids: Eerdmans, 1995), 15. 레만은 구체적으로 프락시스를 사고와 행동이 구분은 되나 분리되지 않는 구성 요소들로, 행동 안에서의 이해 (understanding-in-action) 혹은 행동 지향적인 이해(action-directed-understanding)를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35) Cf. 채수일, 「경제위기에 대한 교회의 대응」, 2009 총회 교회와 사회포럼, 2009. 2.

제로 고려해야 한다는 시각이다.³⁶⁾

같은 맥락에서 몰트만은 신학이 ‘하나님-나라의 신학’이며 하나님 나라의 지평 속에서 ‘공적인’ 신학이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세상과의 공적인 관계성 없이 기독교적인 정체성은 존재하지 않으며, 신학의 기독교적인 정체성 없이 세상과의 공적인 관계성도 존재하지 않는다.”³⁷⁾ 이 말은 사사화된 종교적 관심에만 함몰되지 않도록 신학은 개인의 영혼구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적 교리에 일치하여 공동의 삶의 안녕과 공공복리의 추구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다.³⁸⁾ 특성과 본질에 있어 ‘공적인’ ‘하나님 나라의 신학’은 ‘신앙 공동체 속으로의 소종파적 퇴각’을 선택하지도 않고 지배적인 사회문화적 코드나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정치경제적 논리에 지나치게 민감하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기독교 신학적 고유성의 발현을 통해 ‘저항적’이고 ‘생산적’으로 이웃들의 풍성한 삶과 적용 가능한 사회적 대안 제시에 헌신한다.³⁹⁾ 이런 의미에서 신학은 사회의 공적인 과제와 이슈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 속에서 공익과 ‘공공복리’에 복무하기 위해 공동의 삶에서 실천과 적용이 가능한 이론적 체계와 실천적 프로그램을 제시하려고 힘써야 한다.⁴⁰⁾

위와 같은 관점이 주장되고 접근 방법이 시도되어야 하는 것은 신앙의 사사화 및 공공신학에 대한 소홀이 본 주제와 관련하여 기독교(그리고 신학과 교회)와 사회 전체에 바람직하지 않은 두 가지 상황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신학의 사사화로 인한 (공공)신학의 역할이 부재

36) 조한상,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서울: 책세상, 2009), 34.

37) 위르겐 몰트만, 『세계속에 있는 하나님』, 광미숙 역 (서울: 동연, 2009), 9.

38) 위르겐 몰트만, 『세계속에 있는 하나님』, 7.

39) 위르겐 몰트만, 『신학의 방법과 형식』, 김균진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17.

40) 위르겐 몰트만,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 10.

하고 요구되는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 공적 영역에서의 신학과 교회의 영향과 역할의 상실이다. 이러한 역할론의 부재는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무관심과 무책임성에 대한 대내외적 비판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다. 또한 사회 전체와 관련해서는 신앙의 사사화 및 공공신학에 대한 소홀로 인한 비신학적인 경제적 관점 위주의 고령화사회 문제 접근은 일과 사회활동 및 공동체에 관한 지속가능한 대안이 제시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고령화가 수반하는 사회경제적 도전을 고려할 때, 100세 시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시혜’보다는 자립이나 기회제공 등과 사회적 요소 즉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강력한 네트워크(관계와 공동체 회복)가 개인과 공동의 삶의 질 제고에 대한 가능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금 부터는 이러한 사실에 착안하여 공공신학적 접근을 통한 적절한 방향 제시에 기여할 수 있는 신학윤리적 개념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필자는 이를 위해 공공신학적 주제로서의 ‘소명’과 ‘코이노니아’에 대한 해석을 고령화시대와 연관하여 시도하고자 한다.

1. 소명

인간은 창조 시에 이미 하나님으로 부터 피조계에 대한 청지기적 다스림의 임무로 부름을 받았다. 그 부름(소명)의 내용은 “문화를 창조하고, 역사가 전개됨에 따라 복합적인 사회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함축적으로 서술된다.⁴¹⁾ 소명은 주위의 환경에 적응하려하고 환경을 자신에게 맞추려 하지 않는 대신, 우주질서를 따르고 현 상태에 적응하는 현상(現狀)지배적(ontocratic) 관점과 대조적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은 인간이 지구에

41) 맥스 스타카하우스, 이상훈 역, 『글로벌시대의 공공신학: 세계화와 은총』(북코리아, 2013), 266.

대한 통치권을 갖고 있고 인간의 선(善)과 복리를 위해 피조계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한다는 사상에 기초한다.⁴²⁾ 성경에서 ‘일하시는 분’으로 묘사 되는(창 1:1-2:4; 2:4이하; 요 5:17) 하나님은 인간에게 창조 세계가 처음 창조된 상태대로 변화 없이 존속되기 보다는 그 속에 “내재된 가능성들이 개발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완성으로” 나아가도록 더욱 발전시키라는 문화명령을 주셨다.⁴³⁾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래시킨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상의 모든 것이 신성한 것이 되므로 모든 일과 직업 그리고 사회 활동은 성스러우며 ‘초월의 영역’에 속하게 된다. 일체의 일은 신자로서 우리가 맡은 거룩한 칭지기 직분이며 그리스도께 대한 섬김처럼 그것을 수행해야 한다(골 3:22-24). 마찬가지로 모든 신자가 제사장의 신분을 가졌다는 개념은 신자인 우리의 모든 일과 활동이 ‘신령한 영적 봉사’라는 뜻이다.⁴⁴⁾ 소명에 대한 이러한 이해는 인간의 모든 일과 활동에 본질적으로 영적 의미와 가치 부여가 이루어짐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일은 생계의 목적과 사회의 유지라는 현실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구속사역’을 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거룩한 활동’이다. 성스러운 칭지기로서 신자는 자신과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직업을 갖는다. (엡 4:28; 행 20:35; 딤후 3:8).⁴⁵⁾ 이처럼 일로서의 소명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한 특수한 임무 수행이며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한 책임성이 그 기저에 놓여있다.⁴⁶⁾

42) Max L. Stackhouse with Lawrence M. Stratton, *Capitalism, Civil Society, Religion, and the Poor: A Bibliographical Essay* (Wilmington, Delaware: Intercollegiate Studies Institute, 2002), 33-34.

43) 신국원, 『신국원의 문화이야기 - 문화전쟁시대의 기독교 문화전략』 (서울: IVP, 2002), 134.

44) 김재영 편저, 『직업과 소명』(서울: IVP, 1989), 14.

45) 박수암, 「신약성경의 직업관」, 『기독교인의 직업과 영성』(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1), 127-129; 김재영 편저, 『직업과 소명』, 15.

그런데 생계나 수입과 반드시 연계되지 않으며 생산적이거나 기여하는 활동으로서의 일에 대한 이러한 이해 즉 거룩한 의미가 부여되는 소명으로서의 온갖 활동은 우리 사회에서 발견되는 전형적인 은퇴 후의 삶의 방식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상기의 소명적 일에 대한 이해와 달리 고령화사회는 ‘활동적인 삶’(vita activa)보다는 정년 후 은퇴 생활에 친화력이 있는 ‘관조적인 삶’(vita contemplativa)을 추천하거나 그러한 삶을 위해 ‘준비된’ 기간으로 받아들이는 패턴이 생겨날 수 있다. 여기서 ‘활동적인 삶’(vita activa)은 배우는 일과 가르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 등을 포함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일’을 가리키고 ‘관조적인 삶’(vita contemplativa)은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에 대한 묵상과 사색’을 뜻한다. 중세기에는 양자가 모두 선하지만 ‘관조적 삶’이 보다 고상하고 더 의미가 부여되었으며(어거스틴) ‘활동적인 삶’은 필요에 예속되어 있어 ‘관조적인 삶’만이 참으로 자유롭기에 전자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해석했다(토마스 아퀴나스).⁴⁷⁾ 이러한 중세 기독교의 기본 틀에 반대로 모든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판단한 루터는 수도원과 교회 내부에 머물고 있던 ‘영성 추구’의 삶(vita contemplativa)이 세상 한 가운데로(vita activa) 나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를 테면 루터는 “수도원과 교회의 울타리안으로 내향(內向)하는 거룩한 삶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직업 및 경제 활동을 통해 세속적인 삶을 거룩하게 살 것”을 강조하며 ‘관조적인 삶’ 중심에서 ‘활동적인 삶’으로 경건한 삶의 중심을 옮겨 놓았다.⁴⁸⁾

그런데 이 대조적인 두 삶의 패러다임 간에 위계 즉 ‘관조적인 삶’을 ‘활동적인 삶’(vita activa) 보다 우선시 하려는 중세적 경향이 고령화시대

46) 스택하우스, 266-67.

47) 폴 마샬, 「천직, 일, 그리고 직업」, 『바른 직업 윤리』, 황성일 역(나침반사, 1993), 22-24.

48) 이형기, 「중세사회의 직업관과 루터신학에 있어서 직업의 의미」, 『기독교인의 직업과 영성』(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1), 178.

에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먼저 현실적으로 고령층들에 대한 명시적인 혹은 암시적인 연령주의(ageism)와 법과 제도 및 문화적인 배제는 사회 여러 분야에서 경험되고 있다. 이러한 공적 영역에서의 차별과 제한이 신앙의 사사화에 대한 유혹을 강화시키므로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이라는 이분법적 세계관이 고령자들에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다. 그 결과 정치, 경제, 문화 등 활동적인 공동의 삶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관조적인 영적 삶으로 주의가 옮겨가는 것을 역설하고 정당화하는 시도가 교회 내·외에서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고립된 경건’을 선택하거나 ‘종교적 성역’ 안으로 퇴거함으로 교회와 사적인 삶의 공간으로 내향(內向)하는 성화로 머물려는 흐름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소명의 관점은 쉬는 은퇴나 (비활동적인 영성생활을 포함하여) 지속적인 휴가가 아니라, 유무급의 ‘활동적인 삶’을 ‘창조적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타인의 유익에 복무하는 노력을 추천한다.⁴⁹⁾ 이러한 시각은 ‘관조적인 삶’ 보다 ‘활동적인 삶’이 혹은 최소한 양자 간의 적절한 균형이나 통합적 이해가 소명에 더욱 합치되는 것이라는 생각에 기초한다.⁵⁰⁾ ‘관조적인 삶’에 대한 선호와 경제적 여유가 일할 필요 없는 근거로 인식되는 사회와 문화는 생계 때문에 차선적인 업종이나 불가피한 경제활동 등에 참여하는 ‘활동적인 삶’에 대한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지 않는 경향으로 참여자들에게 자존감 상실과 불행을 느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은퇴자들이나 고령자들에 의한 직업과 경제 등의 사회활동에 의미와 목적을 적극적으로 부여하는 소명 개념과는 대조를 이룬다.

한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한 세기 반이 지나면서 ‘보수가 지불되는 일’인 ‘직업’의 발달과 함께 소명개념은 축소 과정을 겪게 되었다. 소명의

49) 낸시 피어시, 홍병룡 역, 『완전한 진리』(서울: 복있는 사람, 2006), 98.

50) 소명개념과 관련하여 특히 고령화사회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관조적인 삶’과 ‘활동적인 삶’의 상관성에 관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의미가 '사회 속의 특정 지위가 요구하는 활동'만으로 한정되는 흐름과 함께 단지 '직업'의 한 형태라는 정태적 면모를 지니기 시작하였다.⁵¹⁾ 소명이 유급의 직업만으로 제한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것과 더불어 보수가 없는 일은 경시되었다. 인증된 '진정한' 일에는 보수가 주어졌지만, 선한 행위로 이해되는 상심한 자의 위로나 병든 자 방문 등은 '이익'을 가져오지 않는 한 '하찮게' 인식되었다. 가사와 자녀 양육 등에 대한 여성들의 소명도 '진정한'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여겨졌다. 이 같은 소명 개념의 축소와 정태적 인식은 유급직 이외의 활동인 봉사와 무급의 참여적 삶에 대한 가치나 중요성의 약화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익이 없는 역할과 차선적인 업종에 대한 의미와 동기 부여가 되지 못하게 할 수 있다.⁵²⁾

이러한 이유로 인해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고령화사회는 소명에 대한 다면적(多面的)이고 다중적(多重的) 해석과 의미의 활용을 요구한다. 보다 탄력적이고 동태적 개념으로서의 소명은 우리 존재 자체와 모든 가시적 비가시적 활동까지 그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소명에 따른 인간의 가치는 생산성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섬김에서 더욱 찾아가고 인간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코이노니아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⁵³⁾ 이러한 소명의 관점에서 일은 유급적으로만 한정되지 않으며, 남을 섬기는 다양한 활동까지 포함하여 의미가 충분히 부여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역사에의 참여'로 이해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을 적절하게 영위하기 위한 일반적인 일까지도

51) 폴 마샬, 「천직, 일, 그리고 직업」, 『바른 직업윤리』, 폴 마샬 외, 황성일 역 (서울: 나침반, 1993), 34.

52) 폴 마샬, 「천직, 일, 그리고 직업」, 35; Cf. Miroslav Volf, *Work in the Spirit: Toward a Theology of Work*(Eugene: Wipf and Stock Publishers, 1991).

53) Lukas Visher, "The Work of Human Beings as Creatures of God," in *The Ecumenical Review*, vol. 48, No. 3 (July 1996), 306-310(이형기, "중세사회의 직업관과 루터신학에 있어서 직업의 의미", 『기독교인의 직업과 영성』[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1], 184에서 재인용).

‘하나님 나라에의 참여’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다.⁵⁴⁾ 바른 소명 이해에 따라 모든 일 혹은 직업과 활동이 하나님의 ‘부르심’일수 있고 신학적 의미가 부여되며 또한 모든 인류에게 문화명령이 적용되기에 소명과 무관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처럼 ‘문화명령’은 과제(Aufgabe)임과 동시에 형벌과는 무관하게 타락이전의 모든 인간에게 베풀어진 선물(Gabe)이기에 인간은 누구나 일과 사회활동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⁵⁵⁾

소명은 그러므로 정년 후의 적절한 경제활동이 생계 수단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에 길어진 노후를 보람되고 활력 있게 보내도록 권면한다.⁵⁶⁾ 나아가서 소명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취업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재능나누기 등 전반기의 경험과 지식을 통한 봉사로 의미와 가치 있는 후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한다. 우리는 여기서 소명사상에 입각해 장수혁명에 따른 수명연장과 새로운 은퇴 이해 및 방식에 의한 시대적인 조건이 일과 직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사회참여활동에 대한 가치부여를 통해 청지기적 삶의 자세를 필요로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⁵⁷⁾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최근에 우리나라 남성이 경제활동으로부터 완전히 은퇴하는 실질은퇴 연령이 70세가 넘어 서방 선진국보다 높은 사실이 준비 되지 않은 고령화

54) 이형기, 187. 그래서 모든 일들이 ‘주님을 위해서’(살전 2:12; 4:9-11; 고전 7:17)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살후 3:6; 행 20: 35; 골 3:17)행해져야 한다(이형기, 187).

55) Cf. 신국원, 『신국원의 문화이야기』(IVP, 2002), 137. 이러한 관점에서 ‘노인을 위한 UN 원칙’(UN Principles for Older Persons)이 규정하는 ‘근로권 보장’의 실현을 주장할 수 있다(우국희, 「고령화사회의 노인 인권」,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고령화사회』, 최성재 편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59.

56)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만 60세 이상 고령인력인 ‘실버사원’을 채용함으로써 ‘인생2막’을 지원하기 위한 고령자 재취업과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이근호, “77세에 일자리 연다 - LH 실버사원 ‘인생 제2막’ 『머니투데이』, 2010. 6. 28. 은퇴 후 재취업이 갖는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를 찾는 ‘일’에 대한 이해와 직업관 혹은 직업윤리를 위한 교육적인 노력이 재취업과 사회활동의 기회제공과 병행되어야 한다.

57) Cf. 이상훈, 「소명으로서의 직업과 윤리」, 『가치가 이끄는 삶』(서울: 동연, 2013), 165-191.

사회와 100세 시대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로 그려지고 설명될 필요가 없어 보인다.⁵⁸⁾

기독교윤리학자 폴 레만(Paul L. Lehmann)은 인간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존재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개인의 삶 속에서 각자가 부름 받은 소명을 지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 계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이라고 설명한다.⁵⁹⁾ 인간의 하나님 형상(*imago*)이란 타 피조물과 구별되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신약성경의 형상(*imago*)에 대한 언급은 하나님의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부각시킴으로써 관계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롬8:29). 하나님의 형상을 이러한 관계의 틀에서 볼 때 ‘소명’은 보다 실제적으로 이해되는 구체성을 갖는다. 이러한 관계적 의미의 형상이해와 관계 속에서 실제적으로 설득력을 갖는 소명 개념은 공동체 형성을 위해 복무하는 부름으로 정의되어야 그 의미와 역동성이 적절히 파악되고 실천될 수 있다. ‘형상’이 관계적 의미로 이해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자신과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에 기여적인 참여를 통한 책임 있는 존재로 살아갈 것을 요구받는다.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서로 간의 교제와 공동체 속으로 부르신다. 소명 즉 부르심은 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고 유지에 기여하는 역할로 타당하게 적용된다.

58) 김태근, 최형석, ‘딱한 한국인... 70세까지 일해야 될수 있다’, 『조선일보』, 2012. 7.4. 이와 관련 ‘실버세대’와 구별되는 ‘액티브 시니어’는 사회의 짐이 아니라 가치 있는 자원으로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기여를 추구한다(‘일-소비 주축 ‘액티브 시니어’가 온다’, 『동아일보』, 2013. 8. 19; 2013. 8. 26; 2013. 8. 28).

59) Nancy J. Duff, *Humanization and the Politics of God*, (Eerdmans, 1992), 15-16.

2. 코이노니아

고령화시대의 정책 방향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100세 시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정책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구성원 전체의 참여와 공생(共生)이 합의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⁶⁰⁾ 이러한 정책방향 제안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령화사회가 인간관계와 공동체 개념이 약해질 가능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강력한 네트워크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점과 연결된다. 이를 위한 모델로서 필자는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본 코이노니아(Koinonia) 개념의 적용을 제안한다.

인간 삶의 사회적 차원과 공동체의 중요성 그리고 관계성 속의 인간에 관한 논의를 필자는 위에서 언급된 폴 레만(Paul L. Lehmann)의 하나님 의 형상(imago Dei)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그의 신학이 공동체에 초점이 맞춰진 레만은 형상(imago)은 신약과 기독교론적으로 이해할 때 ‘관계’를 가리킨다고 말한다. 관계적으로 이해할 때 형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존재 속으로 부르심 받은 역동적인 사건”이 된다.⁶¹⁾ 인간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교제 속에 살아가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언급된 ‘형상’의 함의 즉 관계와 소명은 사회윤리적 실천 방향과 내용이 공동체의 복원을 지향하는 소명의 이행과 이를 통한 인간의 행복이어야 함을 시사한다. 레만에 따르면 코이노니아는 우리의 주의를 인간의 관계맺음으로 향하게 한다.⁶²⁾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가 인간의 교제를

60) 이수영, “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주최, 「역동적인 100세 사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2011. 12. 8.

61) Paul Lehmann, “The Christian Doctrine of Man, I: Man as Creature,” *The Journal of Religious Thought* 1, no. 2(1944), 153, Nancy Duff, *Humanization and the Politics of God*, (Eerdmans, 1992), 16에서 재인용

62) Paul Lehmann, *Ethics in a Christian Context* (New York: Harper & Row, 1963), 49, 85.

일으키고 인간 사회의 지속에 요구되는 유대를 제공한다. 그리고 코이노니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들 가운데 만드시는 상호연관성의 구조를 보여준다.⁶³⁾

한편, 사회성과 관계지향적인 코이노니아의 개념에는 각자의 달란트와 재능이 우호적인 환경에서 최대한 발휘되도록 격려와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포함한다. 코이노니아는 능동적이고 활동성이 발현되는 교제로 각자의 재능과 소명이 개발되며 실천되는 것을 전제하기에 은사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격려하며 수용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코이노니아는 다양한 은사를 수반하는 교제로서 그 안에서는 획일성도 없고 단조로움도 없는 공동체적 특징을 지닌다. 이들 다양한 은사들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이며 그리스도께서도 이러한 창조주의 목적에 일치하여 지상에서 사역하셨다.⁶⁴⁾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속에 내재하는 본질적 의도인 은사의 다양성은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차이’와 ‘다름’이 창조의 선함에 대한 표지임을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다.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지향하는 이러한 레만의 관계윤리적 특징은 ‘책임적인 상호성’ 개념을 통해 잘 표현된다. 그의 관계윤리적 원칙인 ‘책임적인 상호성’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다양성을 축하하는 대신 비인간화시키는 인간관계의 구조를 거부한다. 가령 다름(예를 들어 연령차나 세대차 등에 따른)이 소외나 갈등 나아가 억압의 기제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독교 신앙의 표현을 위한 근거로 인식되고 실천되도록 한다. 억압적이고 파괴적인 소외와 비인간화로 고착화 될 수 있는 평등과 계층은 구속적인 이질성과 차이로 승화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책임적인 상호성’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향해 자발적 이타를 실천함으로 관계윤리의

63) Lehmann, *Ethics in a Christian Context*, 56.

64) Lehmann, *Ethics in a Christian Context*, 52.

행동양식인 ‘의도적으로 취약해지기’를 선택하고 익히게 한다. ‘의도적으로 취약해지기’는 관계의 역학에 있어 자신의 권리보다 타자에 대한 책임을 우선하는 것으로 표현된다.⁶⁵⁾ 따라서 자기 충족적이고 자아중심적인 존재로 지내는 것을 지양하고 관계 와 공동체 속에 내재된 불가결(不可缺)한 기능과 전체 공동체에 기여하는 관계의 역할을 인정하고 촉진한다. 이러한 관계윤리적 실천은 차별에 대한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인식에 앞서 차이로 인한 창조적이고 호혜적 다름에 주의를 기울이게 함으로 각자의 모습과 상황에 따른 삶의 이질적인 방식을 격려하고 이행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책임적인 상호관계’는 상대방으로부터 등가물을 요구하는 계약적 평등이나 공평주의에서처럼 대응적 교환관계로 전락하는 유혹을 경계한다. ‘상호 책임성’과 이의 실천을 위한 의도적인 취약 선택에 기초한 관계윤리는 상대방으로서 타자들이 누구이든 그리고 상호관계나 교환에서 그들이 무엇으로 응답하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그들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들을 대하고 바라보려한다.⁶⁶⁾ 이런 의미에서 코이노니아는 부득이하게 비활동적인 것 혹은 생산적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는 관계 및 공동체의 이해방식을 갖는다. 불가피한 비활동성이나 비생산성을 이유로 타자(구성원들)에 대한 배타나 평가절하는 비가시적인 활동과 비계량적 산출이 가져오는 ‘다름’ 가치와 의미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며 코이노니아에서 특징적으로 추구되는 공동체와 본질적으로 채택되는 관계윤리로부터 벗어난다.

인간 사회 속에 실현되어야 할 기독교 사회윤리적 지향인 이러한 코이노니아의 유비는 삼위 하나님의 삶과 존재방식(삼위하나님의 다양성과

65) Paul Lehmann, *The Decalogue and a Human Future: The Meaning of the Commandments for Making and Keeping Human Life Human* (Grand Rapids: Eerdmans, 1995), 34-37.

66) 이상훈, 「기독교적 언약(言約)과 유교적 향약(鄉約)의 비교」, 『기독교사회윤리』 제18집 (2009): 289-316,

동시에 일체되신 통일성)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의 페리코레시스(perichoresis, 상호내주, 상호관통, 상호참여 등으로 번역)적 관계 속에서 각 위는 서로 ‘독립적’이거나 ‘개별적’이지 않고 상대방에게 “자신의 존재를 의탁하고 맡기는 상호 의존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⁶⁷⁾ 따라서 삼위일체 영성은 구속적으로 일어나는 나와 다른 이들과의 공존, 타자에 대한 환영과 수용, 그리고 타자와의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진정한 ‘나’를 일러줌으로써 다양성에 대한 존중과 차이에 대한 예찬을 가르친다.⁶⁸⁾ 또한 서로 다른 이들 간의 상호 인정과 사랑의 사감을 말하는 삼위일체 영성은 서로 중노릇하며 스스로 섬기는 디아코니아의 삶과 관계를 교훈한다.⁶⁹⁾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는 코이노니아인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섬김의 기회를 향해 무한한 자유를 가지게 됨”을 가리키고⁷⁰⁾ 동료 인간과의 성숙한 연대(連帶)속에서 ‘낮선 자’와 ‘가난한 자’와 ‘무시 받는 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실천을 의미한다.⁷¹⁾

이상에서 살펴 본대로 코이노니아가 전시하는 관계윤리의 원칙은 고령화사회의 문제, 즉 준비되지 않은 100세 시대에 대한 불안감의 이유로 거론되는 소외와 고독감 그리고/혹은 사회적 역할의 부재를 위해,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삶의 질과 행복의 조건인 사회적 요소로서 인간관계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기여 가능한 통찰과 방향을 제시한다고 본다. 우선 고령화사회의 문제에 더 많이 노출된 노령층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연령

67) 정성욱, 『삶 속에 적용하는 Life 삼위일체 신학』(서울: 흥성사, 2007), 63.

68) 정성욱, 『삶 속에 적용하는 Life 삼위일체 신학』, 111, 112.

69) 정성욱, 『삶 속에 적용하는 Life 삼위일체 신학』, 116,

70) 다니엘 L. 밀리오리, 『기독교 조직신학개론』, 신옥수, 백충현 역(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405.

71) 밀리오리, 405-6. 이와 관련 다니엘 밀리오리는 교회의 “코이노니아는 폐쇄적이지 않고 선교와 섬김으로 세상에 대하여 개방되어 있다.”고 강조한다(밀리오리, 435).

주의나 높은 노인빈곤율, 위축된 이들의 생산성과 활동성, 노년층 및 고령화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부상하는 세대 간의 갈등 조짐 등이 언급 되었다. 이에 대하여, 차이와 다양성에 대한 존중, ‘책임적 상호성’과 이의 실천을 위한 ‘의도적으로 취약해지기’, 그리고 상호관계나 교환에서 등가물을 요구하는 계약적 평등이나 공평주의를 넘어 하나님의 다양한 부르심에 복종하는, 즉 타자를 섬기고 그들과의 성숙한 연대(連帶)를 통해 이루어지는 ‘나의 성장’, 또한 활동성과 생산성이 없는 타자에 대한 존중과 수용 및 이들이 산출(產出)하는 비물질적인 ‘다른’ 가치와 의미의 가능성에 대한 열린 자세 등은 위의 고령화시대의 문제가 제기하는 다양한 과제와 도전에 대해 지속가능한 대안제시를 위한 발전적 논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V. 결론과 교회의 참여에 대한 제안

본 발제는 불안정을 느끼고 부정적인 ‘준비되지 않은’ 100세 시대와 고령화사회에 대한 인식에 대해 대안제시에 기여할 수 있는 신학윤리적 논의를 공공신학적 관점에서 시도한 것이다. 우선 우리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준비되지 않은’ 100세 시대에 대해 불안감과 부정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이유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이는 ‘역할이 없이 늘어난 여성’과 ‘불충분한 경제력’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에 발제자는 대안형성(을 향한 발전적 논의)에 기여할 수 있는 통찰과 방향제시를 위해 ‘소명’과 ‘코이노니아’에 대한 해석과 설명을 공공신학윤리적 관점에서 전개하였다. 첫째, 100세 시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은퇴한 고령자들이 스스로 ‘활동적’이며 ‘생산적인 사회적 자본’으로 제2인생을 시작하고 동시에 일과 유, 무급의 모든 활동에 (영적인) 목적과 의미를 부여

하기 위해 소명개념이 필요함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사회적 요소 즉 사회 구성원들 간의 강력한 네트워크(관계와 공동체 회복)가 고령화시대에 삶의 만족을 가져올 가능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코이노니아 윤리를 논의해 보았다. 코이노니아가 전시하는 관계윤리의 원칙은 고령화 사회의 문제인 준비되지 않은 100세 시대의 불안감의 이유인 소외와 고독감 그리고/혹은 사회적 역할의 부재를 위해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삶의 질과 행복을 위한 사회적 요소로서 인간관계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기여 가능한 통찰과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학자들은 100세 시대 대비는 국민, 정부, 지역사회(communitiy)의 상호 유기적 협력 관계 속에서 진행될 때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건강하고 활동적’인 100세를 ‘새로운 표준’으로 삼는 고령화 시대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에 따라 국민은 사회 안전망 확충과 일자리 증진 등 정부의 지원적 역할과, 적극적 참여와 사회 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장려 및 기회제공 노력 등에 조응하여 개인적으로 의식의 변화와 100세 시대의 삶의 방식으로 전반적인 인생의 재정위(再定位)를 시도해야 한다.⁷²⁾ 이러한 개인적 노력은 고령자들이 ‘국가적 시혜’라는 과거의 시각에서 벗어나 자립이나 기회제공 등을 통한 ‘생산적인 사회적 자본’으로 ‘활동적’인 제2 인생을 살아가려는 여러 시도를 포함한다.

끝으로, 고령화사회에 대한 실효성 있는 준비가 개인·정부·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결합한 접근 방법이 제안된다면 책임적인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떤 형태로 참여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겠지만 발제자는 출발점으로 교회가 위의 지역사회(communitiy)와 유사하게 교

72) 이수영, ‘다가온 100세 시대...당신은 준비 되셨나요?’, 『정책브리핑』, 2011. 12. 16. (<http://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newsId=148724139&pkgId=49500544>)

인들과 지역 내·외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 및 참여의 기회를 연계하는 사역을 수행함으로써 위의 세 주체의 기능이 효율성 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다고 본다. 가령 교회가 먼저 지자체 혹은 대학이나 연구소 또는 NGO 등 지역의 여러 관련기관이나 단체들이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봉사 혹은 다양한 활동의 기회에 대한 정보와 데이터를 취합하여 각각의 타당성을 점검한 뒤 사전에 파악된 각 지원자들의 여러 필요와 목적에 따라 적절하게 연계시킬 수 있을 것이다.⁷³⁾

73) 관련된 자세한 프로그램 진행절차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라. 김수원·이지연, 「중·고령자 능력개발을 위한 제2의 인생설계 지원프로그램연구」, 한국직원능력개발원, 2006. 8.

참고문헌

- 강창희.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부모와 다르다』. 서울: 쌤앤파커스, 2013.
- 김수원 · 이지연. 『중·고령자 능력개발을 위한 제2의 인생설계 지원프로그램연구』. 한국직원능력개발원, 2006. 8.
-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다양한 장수리스크의 산정과 국제비교』. 2012. 12. 29.
- 박상철. 『노화혁명: 고령화 충격의 해법』. 서울: 하서출판사, 2010.
- 박상철. 『당신의 백년을 설계하라』. 서울: 생각속의집, 2012.
- 박수암. 『신약성경의 직업관』. 『기독교인의 직업과 영성』.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1.
- 방하남 외. 『기업의 정년실태와 퇴직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2. 12. 28.
- 새세대 교회윤리연구소 편. 『공공신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서울: 북코리아, 2008.
- 신국원. 『신국원의 문화이야기 - 문화 전쟁 시대의 기독교 문화 전략』. IVP, 2002.
- 우국희. 『고령화사회의 노인 인권』.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고령화사회』. 최성재 편저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 우재룡. 『100세 시대 은퇴 대사전: 30부터 준비하는 108가지 은퇴전략』. 서울: 21세기 북스, 2014.
- 이상훈. 『신학해제: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에 관한 이해』. 문시영.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북코리아, 2007.
- 이상훈. 『기독교적 언약(言約)과 유교적 향약(鄉約)의 비교』. 『기독교사회윤리』 제 18집(2009): 289-316,
- 이상훈. 『소명으로서의 직업과 윤리』. 이장형. 『가치가 이끄는 삶』. 서울: 동연, 2013.
- 이수영. “100세 시대 도래의 시사점과 정책방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주최. 『역동적인 100세 사회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2011. 12. 8.
- 이형기. 『중세사회의 직업관과 루터신학에 있어서의 직업이해』, 오성춘 편, 『기독교인의 직업과 영성』.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1.

- 장신근. 『공적실천신학과 세계화시대의 기독교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7.
- 전홍택 외. 『100세 시대 어떻게 행복하게 살 것인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1.
- 정성욱, 『삶 속에 적용하는 Life 삼위일체 신학』. 서울: 홍성사, 2007.
- 조한상. 『공공성이란 무엇인가?』서울: 책세상, 2009.
- 채수일. “경제위기에 대한 교회의 대응”. 2009 총회 교회와 사회포럼. 2009. 2. 26.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0년~2060년』. 2011. 12. 7.
- 한국개발연구원(KDI).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분석체계 개발』. 2010. 6.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생 100세 시대 대응 국민인식 조사결과』, 2011.
- Bainbridge, David. 이은주 역. 『중년의 발견: 과학이 밝혀낸 중년의 놀라운 능력』. 서울: 청림출판, 2013.
- Bok, Derek. 추홍희 역. 『행복 국가를 정치하라』. 서울: 지안, 2011.
- Bufford, Bob. 이창신 역. 『하프타임』. 국제제자훈련원, 2009.
- Duff, Nancy. Humanization and the Politics of God. Eerdmans, 1992.
- Friedman, Thomas. 이근식 역. 『세계는 평평하다』. 21세기북스, 2013.
- Lehmann, Paul. “The Christian Doctrine of Man, I: Man as Creature,” *The Journal of Religious Thought* 1, no. 2(1944), 153,
- Lehmann, Paul. *Ethics in a Christian Context*. New York: Harper & Row, 1963.
- Lehmann, Paul. *The Decalogue and a Human Future: The Meaning of the Commandments for Making and Keeping Human Life Human*. Grand Rapids: Eerdmans, 1995.
- Magnus, George. 홍지수 역. 『고령화시대의 경제학』. 서울: 부키, 2010.
- Marshall, Paul. 황성일 역. 『천직, 일, 그리고 직업』. 폴 마샬. 『바른 직업윤리』. 서울: 나침반, 1993.
- Migliore, Daniel L. 신옥수 · 백충현 역. 『기독교 조직신학개론』.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 Moltmann, Jürgen. 『신학의 방법과 형식』. 김균진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1.
- Moltmann, Jürgen. 광미숙 역. 『세계속에 있는 하나님』. 서울: 동연, 2009.
- NHK 무연사회 프로젝트팀. 김범수 역. 『무연사회: 혼자 살다 혼자 죽는 사회』. 서울: 용오름, 2012.

- Pearcey, Nancy. 홍병룡 역. 『완전한 진리』. 서울: 복있는 사람, 2006.
- Pearcey, Nancy R. and Charles B. Thaxton, *The Soul of Science: Christian Faith and Natural Philosophy*. Wheaton, Ill.: Crossway Books, 1994.
- Reich, Robert B. 남경우 역. 『국가의 일』. 서울: 까치글방, 1994.
- Rifkin, Jeremy. 이영호 역. 『노동의 종말』. 서울: 민음사, 2005.
- Rosenberg, Charles E. *The Care of Strangers: The Rise of America's Hospital System*.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5.
- Schirmacher, Frank. 장혜경 역. 『고령 사회 2018: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라』. 서울: 나무생각, 2011.
- Stackhouse, Max L. *Public Theology and Political Economy: Christian Stewardship in Modern Society*. Lanham, Maryland: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91.
- Stackhouse, Max L. with Lawrence M. Stratton, *Capitalism, Civil Society, Religion, and the Poor: A Bibliographical Essay*. Wilmington, Delaware: Intercollegiate Studies Institute, 2002.
- Stackhouse, Max L. 이상훈 역. 『글로벌시대의 공공신학: 세계화와 은총』. 서울: 북코리아, 2013.
- Storrar, William F. and Andrew R. Morton. *Public Theology for the 21st Century*. New York: T&T Clark, 2004.
- Strauch, Babara. 김미선 역. 『가장 뛰어난 중년의 뇌: 뇌과학이 밝혀낸 중년 뇌의 놀라운 능력』. 서울: 해나무, 2011.
- UN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Ageing 2009*, 2010.
- Visher, Lukas. "The Work of Human Beings as Creatures of God." *The Ecumenical Review*. vol. 48, No. 3 (July 1996).

논문투고일: 2014. 02. 28.

심사개시일: 2014. 03. 13.

게재확정일: 2014. 04. 05.

• 국 문 초 록 •

21세기를 들어서면서 수명연장에 따른 장수혁명은 우리에게 닥칠 수많은 변화의 근원이 되기에 그것이 갖는 함의에 우리의 주의가 환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100세인을 가리키는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익숙한 개념으로 자리를 잡았다. 흔히 압축적 고령화(compressed aging)로 불리는 한국은 세계에서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으며 ‘최빈사망연령’이 90대가 되는 시점을 100세 시대라고 할 때 2020~2025년에 100세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런데 100세 시대와 고령화사회는 단순한 수명연장이 의미하는 것을 훨씬 넘어서고 매우 광범위한 상황의 전개와 이에 대한 다각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리킨다. 따라서 이 전례 없는 인구학적 변화는 전 세대에 걸쳐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생애주기 이해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제도나 시스템 구비는 아직 미진한 단계이고 의식과 문화는 이전의 패러다임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아 시대적 변화에 따른 요구와 대조를 보인다. ‘100세 시대 국민의식 조사’ 결과는 무엇보다도 뚜렷한 사회적 역할은 없이 늘어나기만 한 긴 여생과 그에 반해 경제적으로 준비가 불충분한 노후 등의 문제가 100세 시대에 대한 불안감과 부정적인 시각의 주요 원인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경제생활을 포함한 적절한 활동의 계기를 마련하고 동기를 부여 하며 공동체 및 관계 중심의 삶을 증진하는 이론과 실천근거의 제공 속에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필자는 적절한 사회적 활동이나 일과 관련하여 소명 개념과 행복의 사회적 요소로서의 공동체 윤리를 위한 코이노니아에 대한 공공신학적 해석을 시도함으로써 위의 고령화사회의 이중 과제에 대한 대처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피고자 한다.

주제어: 공공신학, 기독교 윤리, 고령화사회, 교회, 행복, 소명, 코이노니아
